



건강 ·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 최선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과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래의 인구증가 도시라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새로운 정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지역 보육계획 수립 · 사업 추진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비 지원(2,100만원)으로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5,100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지원(5,000만원)을 통해 관내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김제시 거주 영유아(0~5세) 1,350여명에게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을 통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연장보육료 지원으로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470여명)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낮은 급 · 간식비를 보완하고자 도시 지원사업과 별개로 시비 예산을 투입, 아동당 매월 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의 급 · 간식비 지원으로 40개소의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양질의 급식제공을 받고 있으며 건강도모 등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타지역으로의 전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 유튜브 생중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비대면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보육교직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80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비대면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홍보의 변화-유튜브 활용 전략', '인택트시대의 어린이집 운영전략', '변화하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미래전략 특강으로 진행했다.

아동의 건전육성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11개소 300여명의 아동에게 매월 운영비, 급 ·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상담 · 가족지원), 문화서비스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확충

여아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신규 개소하여 부모의 이혼이나 아동학대로 보호자와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능력 향상과 원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했다.

국공립어린이집 4곳 쾌적한 환경 조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 · 초등돌봄 공간 마련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 위한 돌봄공간 마련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돌봄센터의 기능은 상시 · 일시돌봄, 문화 · 예술 · 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 · 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이다. 2019년에 김제시에 1호점을 개소하였으며, 2020년 추가 돌봄센터를 마련할 예정으로 돌봄 기능 강화와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김제시를 건설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최선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차에 걸쳐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7세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비(아동특별돌봄지원) 지급했다. 1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당시에는 10억8,000만원을 김제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지급 및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위해 5억원을 통장계좌로 지급했다. 이를 통해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으며 지역경제의 위축된 소비심리 촉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 여성가족과 소연숙 과장(사진)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가 행복한 김제를 만들어 가는데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여동행,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

순창이 참 좋따라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